

# 일본의 반려동물 정책과 산업 현황

신 동 철 \*

## 1. 들어가며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해왔으며, 그 안에서 동물의 사육 및 보호에 대해서는 산업동물<sup>1)</sup>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핵가족화, 고령화가 진전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대한 논의는 단순 산업동물이 아닌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람과 공생할 수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이나 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73년에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보호 관리법」)이 제정되었다.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애호 관리법」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 법은 모든 동물의 적절한 사육을 규정하는 등 동물 사육 등에 있어서의 기초법이 되었으며, 이후 이를 기초로 한 「동물 사료법」, 「광견병 예방법」 등 동물 사육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을 검토함에 있어 먼저, 사전 단계로서 일본의 반려동물 정책의 기본적인 법률이 되는 「동물애호 관리법」의 내용과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훗카이도를 사례로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반려동물의 대부분이 개와 고양이를 고려하여, 일본 정부의 위탁사업으로서 애완동물 사료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개·고양이 전국 사육실태조사’를 통해 반려동물의 사육 현황과 관련 산업 현황에 대해 확인한다.

\* 일본 훗카이도대학 대학원 농학연구원 특임준교수 (sdc1012@agecon.agr.hokudai.ac.jp).

1) 한국의 경제 동물과 유사한 개념으로 주로 소, 돼지, 닭, 말, 양 등의 가축을 이용한 산업 진흥에 대해 논의되었음.

## 2. 일본의 「동물애호 관리법」

### 2.1. 「동물보호 관리법」의 제정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 고양이, 소, 말 등의 동물을 가축으로써 사육하고, 또한 같이 생활하며,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용해 왔다. 그러나 1973년, 현재의 「동물애호 관리법」의 전신인 「동물보호 관리법」이 제정되기까지 이러한 동물에 관해 가축으로서의 위생이나 공중위생의 확보, 동물의 유효 이용에 의한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도는 있었으나, 동물의 애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 법률은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개에 의한 부상 사고가 다발하고 사회 문제로 됨과 동시에, 일왕의 영국 방문을 계기로, 영국 언론에 의해 “일본은 동물애호에 관한 법률이 없고, 동물이 학대당하고 있다”라는 비난 기사가 확대되는 등 해외로부터 뒤쳐진 일본 동물애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여론이 확대되었고 1973년 9월에 「동물보호 관리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sup>2)</sup>

「동물보호 관리법」은 “국민들 사이에 동물애호에 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우호 및 평화 증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동물의 학대 금지를 벌칙 규정으로 두는 한정적인 보호 조치의 시행과 동물의 적절한 사육에 관한 사육자의 책무 노력 명시 등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규범으로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법률 제정 직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동물애호 단체를 중심으로 「동물보호 관리법」의 개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2.2. 「동물애호 관리법」으로의 개정과 주요 내용

「동물보호 관리법」 제정 이후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 현상과 그 안에서 인간과 동물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개인의 생활에서의 동물의 존재 의의도 크게 변화하여 왔다. 특히, 반려동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육자와 미사육자 간의 의식 차 등에 기인하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도 표면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야생동물의 애완 동물화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의 사육을 보다 적절하게 관리하기

2) 본 법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위한 조치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7년에 고베시에서 발생한 아동 연쇄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중학생이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이력이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생명을 경시하는 심리가 동물 학대라는 행위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계속되는 등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동물애호 관리법」 개정(1999년)을 촉발시켰다.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명칭 변경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호란, "인간의 측면에서 동물에 대한 그 습성 등을 충분히 배려한 적절한 사육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며, 동물과 보다 좋은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는 모든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개정 전, 제1조의 목적에서 '보호'와 '애호'를 나누어서 명시하였으나, 동물에 대한 실제적 행위를 '보호'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에, '애호'의 의미와 해석이 애매모호해졌다. 그러나 '애호'라는 용어에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실제적인 행위에 대한 이념과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1999년의 개정에서는 '보호'를 '애호'로 바꾸어 동물의 '애호'의 개념과 내용을 명확히 했다.

그 다음으로 사육자 책임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개정 전, 법률상 사육자의 책임은 첫째, 동물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제5조 제1항), 둘째, 동물에 의한 사람의 위해 방지(제5조 제2항), 셋째, 동물의 사육 등에 있어서의 사람의 위해 방지(제5조 제3항)로 규정되어 있었다. 특히, 이 세 가지는 이웃과 협조하여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의 사람과 동물의 공생을 실현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육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 판매자에게 있어 동물 구매자에 대한 적정 사육 방법 등의 설명 책임을 명기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되었다(제6조).

게다가 동물의 사육이 사회 전체에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으로서 동물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애완동물 샵이나 동물원 등의 동물취급업자는 동물의 애호와 사육에 대한 업무를 통해 폭 넓게 또는 밀접히 관계해야 한다는 점이 1999년의 개정에서의 주요 골자이다.

이를 위해 개정법에서는 동물 취급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제 조치가 추가되었다. 그 내용으로서는 먼저, 사업장마다 해당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시설의 현장 조사나 개선 명령에 대한 규정도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법률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고,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 위임되었다.

그 밖에 개정법에서는 동물의 살상을 포함한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을 벌금 3만 엔 이하에서 살상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사육방치 등의 학대나 유기에 대해서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대폭 강화하였다.

대대적으로 개정된 「동물애호 관리법」은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률 제정 당시에는 총리부 소관이었으나, 개정 직후 내각부로, 현재는 환경성으로 이관되어 실시되고 있다.

1999년에 개정된 「동물애호 관리법」은 동물 취급업자에의 규제, 학대나 유기, 살상 등에 대한 처벌의 강화 등 개정 전의 「동물보호 관리법」보다 매우 엄격해졌으나, 당시는 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었다. 이에 부칙으로 시행 5년 후 법률의 시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2005년 6월에 「동물애호 관리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졌다.

재개정된 「동물애호 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물애호에 관한 기본 지침과 추진계획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환경성 장관이 기본지침(2006년 10월 31일 공포)을 정하고, 도도부현은 이 기본 지침에 맞게 동물애호 관리 추진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체제는 향후 기본 지침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을 포함하는 추진 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주도적인 추진 계획 설정이 가능해진다.

둘째, 동물 취급업의 적정화 대책으로서, 「동물취급업자의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동물취급업자에 대한 현행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부도덕한 업자에 대해서 등록 및 갱신의 거부·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명령 조치가 마련되었다.

셋째, 개체 식별 조치 및 특정 동물의 사육 등 규제의 전국 일원화이다. 사람의 생명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특정 동물에 대해서 마이크로칩 등의 개체 식별조치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기타 동물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환경성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게다가 특정 동물에 의한 위해방지에 보다 확실히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사육 또는 보관에 대해서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국 일률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넷째, 처벌이 보다 강화되었다. 애호 동물에 대한 학대나 유기의 벌금이 30만 엔 이하에서 50만 엔 이하로 올라갔다. 그 외에도 특정 동물의 사육 허가제나 실험동물의 복지향상,

학교·지역·가정에서의 동물애호 관리의 교육 및 홍보 추진 등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 3. 홋카이도의 동물애호 관리 추진 계획

일본의 도도부현이나 지정도시는 독자적으로 동물애호에 관한 조례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조례의 내용이 다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물애호 관리법」 및 동법에 관한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된 법률 및 기본지침을 자세히 규정하고 이 법률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sup>3)</sup> 이하에서는 홋카이도의 「동물애호 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통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에 검토한다.

#### 3.1. 개요

홋카이도의 「동물애호 관리 추진계획」에서는 기본지침의 취지에 맞춰 홋카이도의 지역 특성이나 실정을 고려하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행정의 기본적 방향성과 중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 및 실시 주체의 설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홋카이도는 도내 모든 지역에서 계획적, 통일적으로 본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동물애호 관리법」 제6조 및 「홋카이도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동물애호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에 근거해 정하고 있다.

추진계획의 목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사회 만들기이다. 동물이 애완동물로서의 성격을 넘어, 반려동물로서 인간 생활에 없어서 안 되는 존재가 되는 반면, 동물의 학대, 유기, 안이한 사육방치, 부적절한 사육에 기인하는 민폐 행위나 상해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홋카이도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동물과 올바른 교감을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과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이에 대해서 실제 「동물애호 관리법」 제14조에서는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동물취급업자에 대해서 그 내용에 규정되는 조치로 대신하여, 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해 조례로서 특별 규제 조치를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민 생활 안에서 생명존중이나 우호 등의 정서적 함양 실현이다. 동물 학대 사건이나 왕따, 자살 문제 등의 배경으로서 현재 사회에서는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나 상호 존중하는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홋카이도는 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생명 존중의 정신과 약자에의 우호를 기르고 정서적 함양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선 두 가지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홋카이도에서는 ① 동물의 애호와 관리에 관한 활동을 넓게, 그리고 도민에 근접한 활동으로서 추진, ② 장기적 시점으로 종합적 및 계획적인 정책 전개, ③ 동물의 애호와 관리에 대한 관계자 간의 협동관계 구축, ④ 정책 실행에 관한 기반 정비 등 네 가지를 추진계획의 주된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물의 적정한 사양 관리 추진'과 '동물애호의 의식 및 박애 정신의 양성과 함양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본 계획은 「동물애호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기적 시점에서 홋카이도의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전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책정된 것이지만, 각 시정촌<sup>4)</sup>이 실시하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각종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지자체마다 책정한 행정 기본 계획 등의 개별 계획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그 밖에 본 계획은 「홋카이도 종합계획」의 특정 분야별 계획의 일부이며, 「홋카이도 환경 기본계획」 안에서 동물의 애호와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서의 성격도 존재한다.

### 3.2. 범위

본 계획은 2017년에 초안이 작성되었고 실제로 실시하는 것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이다. 본 계획의 범위는 홋카이도 내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동물은 「동물애호 관리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애호 동물인 소, 말, 돼지, 양, 염소, 개, 고양이, 집토끼, 닭, 집오리 외에 사람이 기르고 있는 포유류, 조류, 또는 파충류에 속하는 동물로 한정한다.

### 3.3. 추진 체제

「동물애호 관리법」에서는 도도부현(홋카이도), 지정도시(삿포로시), 핵심도시(아사히카와

---

4) 일본의 시정촌은 선거를 통해 장을 뽑는 최소단위의 행정구역이란 점을 보면 한국의 시군에 해당되나, 인구 수 등을 통해 한국의 읍면동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음.

시, 하코다테시)에 동물의 거래 등의 구체적인 사무를 지정함과 동시에 정부와 모든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동물애호의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제로 계획을 추진함에서는 정부 관계 기관이나 시정촌을 포함한 모든 지방공공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홋카이도는 행정 기관, 수의사, 관련 업계, 동물애호 및 동물 소유자 등의 단체, 학술 연구기관 등의 전문기관 등 기관 및 도민 모두가 각각 적절한 역할 분담 하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홋카이도-시정촌-지구'의 계층 형태의 피라미드 방식으로 동물애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 분담은 <표 1>과 같다.

<표 1> 동물애호관리 추진상의 역할 분담

역할분담	정부 (환경성)	홋카이도	삿포로시 (지정도시)	아사히카와시 하코다테시 (핵심도시)	오타루시 (보건소 설치시)	기타 시정촌
지도/교육 및 홍보	○	○	○	○	○	○
동물 취급업의 감시지도 등		○	○	△	△	△
특정 동물의 사육· 보관의 감시 지도 등		○	○	△	△	△
특정이입 동물의 사육 감시 지도 등		○	△	△	△	△
동물의 거래, 부상 동물의 보호 수용		○	○	○	☆	☆
재해 발생시의 동물 보호 내용	△	○	○	○	○	○
동물애호추진원의 위촉·활동		○	○	○	△	☆

주: ○ 실시주체, △ 실시주체에의 협력주체, ☆ 실시주체에 협력하지만, 일부 실시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 주체  
자료: 홋카이도청(2017).

### 3.4. 구체적인 정책 전개

#### 3.4.1. 기본적 방침

홋카이도는 다른 지역의 동물애호 센터와 같이 동물애호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표 2>와 같이 업무 위탁 등의 형태로 복수의 기관과 분담하면서 대응하고 있으며,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대해 실시해야 할 정책을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적 방침에 의해 설정하고 있다.

<표 2> 동물애호 관련 담당 조직 및 업무 내용

구분	담당	업무내용
동물애호 행정창구	환경생활부 환경국 생물다양성보전과 (종합)진흥국 보건환경부 환경생활과	동물애호 관리 전반(불편사항 접수, 제1종 동물취급업 등록, 위험 동물의 사육허가 등)
	보건소 생활위생과	동물 거래
	(공사) 홋카이도 수의사회	부상 동물의 보호·수용(도청 위탁)
	삿포로시 동물관리센터	동물애호 관리 전반
	아사히카와시 동물애호 센터	동물애호 관리 전반
	하코다테시 보건소 생활위생과	동물애호 관리 전반
동물관련 행정 업무 대응	오타루시 보건소 기타 시정촌 위생담당과	동물 관계 업무 전반
홋카이도 동물애호 추진 협의회	(공사)홋카이도 수의사회, (공사)일본 애완동물협회 홋카이도지소 외 총14개 단체	「동물애호 관리법」 제39조에 근거해 설립되었으며, 동물애호 추진원의 위촉 및 활동 지원, 동물애호 관리 행정의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 결정

자료: 홋카이도청(2017)

첫째, 도내 모든 지역을 범위로 하는 활동의 추진이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활동을 도내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도민 전체의 공통 이해 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개인의 의식은 동물 자체를 싫어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개는 좋아하지만 고양이는 싫어하는 등 동물의 종류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등 매우 다양하며, 거주지에 따라 지역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폭넓은 층이 자주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을 학교, 지역, 가정 등에 있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물 매개 활동에 의한 정신 건강 케어나 교육 등 동물과의 교류에 의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효과가 폭넓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동물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은 매우 유효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거에 동물로부터 상해를 입은 등의 정신적 면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등의 체질적 면으로부터 동물과의 교류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그 권리를 존중하면서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인 시점으로부터의 종합적·체계적 접근이다. 동물의 애호나 관리에 관한 정책은 대상이 되는 동물의 종류나 사람과 동물과의 교감의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가 실시 또는 관여하고 있다. 이에 동물의 애호나 관리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회 정세에 맞춘 생활 스타일이나 가치관 등의 변화에 의해 항상 변화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시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셋째, 관계자 간의 협동 관계의 구축이다. 동물 관계 업무의 창구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며, 동물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서, 기관, 단체 간에서의 폭 넓은 협동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의 실행을 지원하는 기반의 정비이다. 동물애호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고 폭 넓은 협동 활동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것들의 중심적인 위치 또는 종합 조정을 행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장을 도 및 지역단위에서 정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편, 최근 보호·수용 동물의 양도사업 등에 있어서, 동물애호 단체 등에 의한 정책의 공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정책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홋카이도, 삿포로시 및 아사히카와시에서는 「동물애호 관리법」에 근거하여 ‘동물애호 추진원 제도<sup>5)</sup>’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에 협력하는 자원봉사자로서 ‘동물애호 추진원’을 위촉하고 있다. 향후, 추진원에 의한 활동과 동물애호 단체 등에 의한 활동을 연계하여 각 지역에 있어서 전개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연계를 추진함에 있어 동물애호 추진원이나 동물애호 단체, 업계 단체의 질적 수준의 향상 및 업계 지원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섯째, 홋카이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풍부한 자연을 가지며, 많은 야생동물이 사는 홋카이도의 자연환경", "매우 광활한 면적을 보유한 홋카이도의 광역성 및 한랭한 기후 조건", "자연과 공생하는 세계관을 가진 아이누 민족에 의한 동물의 사육·이용이나 개척기부터 이어져 온 가축의 광범위한 이용, 최근의 동물애호 개념의 교육 및 홍보 등, 홋카이도의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역사적 경위"라고 하는 홋카이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이는 「동물애호 관리법」 제38조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애호 관리 정책에 협력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도민이 자원봉사자로서 동물의 애호나 올바른 사육법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담당하는 제도임. 총 170명을 모집하며, 임기는 2년으로, 주요 활동내용은 ① 지역의 동물애호와 적정 사육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② 홋카이도 및 시정촌이 개최하는 동물애호 주간 관계 행사에의 협력, ③ 홋카이도와 시정촌이 실시하는 동물의 양도사업의 새로운 사육자 찾기에의 지원 협력, ④ (종합)진흥국이 개최하는 회의, 연수회에 출석과 활동 보고임.

### 3.4.2. 동물의 적절한 사육에 관한 사항

#### (1) 적정 사육 추진에 의한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의 확보

2012년의 「동물애호 관리법」 개정에 의해, 사육자 등의 책무로서 종생사육이나 적절한 번식에 관한 노력 의무가 명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아직 부적절한 사육이나 사육 방지, 무질서한 번식, 유기·학대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동물 거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고양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육자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사육자가 없는 고양이에 대한 대책 및 유기·학대 방지 대책의 강화를 추진하고,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 (2) 동물에 의한 위해나 민폐행위의 방지

동물에 의한 위해나 울음소리, 분노 등의 민폐 문제는 사육자 등이 적절한 관리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사육자 등에게 동물의 철저한 관리를 주지시키는 조치를 위해 동물에 의한 위해나 민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3) 소유자 명시(개체식별) 조치의 추진

보건소나 동물관리센터 등에서 보호하는 개, 고양이 가운데 사육자에게 되돌아 간 것은 2006년 당시 10%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15% 수준으로 조금이나마 증가하였다. 개에 대해서는 「광견병 예방법」에 근거한 감찰, 주사제표의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장착하지 않은 개나 개 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 등 사육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애호 관리 조례」에서 실내에서의 사육을 지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미아표의 장착 등, 소유자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식이 거의 보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길 잃은 개나 고양이가 쉽게 사육자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소유자 명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그 방법으로서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떨어지지 않는 마이크로칩의 장착을 교육·홍보하고 있다.

#### (4) 동물취급업의 적정화

일부의 동물취급업자가 동물을 상품이기 이전에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보지 않는 의식이 높아져 그에 따른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일부의 동물애호 단체 등 비영리

동물취급업자에서도 부적절한 동물의 사육 및 관리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추진계획에서는 2012년 「동물애호 관리법」 개정에 의한 규제 강화를 포함하여, 동물취급업자가 법령 기준에 근거하여 동물을 적절히 사육·관리하도록 지도·감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 취급업에 관한 문제나 동물의 부적절한 사육·관리 방지에 노력한다.

### 3.4.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동물을 통한 생명존중과 우호·평화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전체에서 넓게 인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는 지역, 학교, 가정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의 살처분 수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도민 전체에게 동물의 애호와 관리에 관한 의식을 교육 및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면서 동물애호 추진원 제도나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홈페이지나 SNS 등을 활용하면서 반려동물의 반환, 양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3.4.4. 추진 체제 정비에 관한 사항

#### (1) 인재 육성 및 확보

동물의 애호와 관리에 대한 과제는 대상이 처한 입장이나 환경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대상이 되는 동물도 반려동물로서 사육되는 개, 고양이, 새, 거북이 등의 작은 동물에서 소, 말 등의 대형 동물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 요구되어지는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대상마다의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한 대응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에 각각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동물애호 담당직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높은 관계기관 등과도 협력하여 정책에 협력해 줄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인재의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

#### (2) 재해 대책

홋카이도에서는 2000년 유주산의 화산 분화로 인한 재해를 계기로 「동물애호 조례」에서

사람과 동물이 같이 피난하는 동행 피난을 추진하는 규정과 지역 방재 계획상의 피난소에 피해 동물용 공간을 확보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에 의한 동물애호 담당 등록제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2013년에는 홋카이도, 삿포로시, 아사히카와시, 하코다테시와 수의사회 및 관계단체와의 협정을 통해 동행 피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동행 피난을 위해 필요한 사육자의 평소 준비나 피난소 등에서의 피해 동물에 대한 정보 확립 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진계획에서는 재해 대책에 관한 사육자에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재해 발생 시 시정촌이 피해 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를 구축·촉진할 뿐만 아니라 협정에 근거하여 동물 보호 체제의 정비와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등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 (3) 동물애호 관리기관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검토

동물의 애호 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인 ‘동물애호 관리센터<sup>6)</sup>’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설치하고 있으나, 홋카이도 내에서는 삿포로시와 아사히카와시에만 설치되었다. 동물애호 관리센터의 본연의 자세는 동물애호 사상의 양성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이 달라지고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춘 센터의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추진계획상에서는 센터의 설치나 개선을 위해 시대의 변화와 도민의 요구에 맞춘 동물애호 관리센터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함과 동시에 시설 정비가 어렵다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 대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 4. 반려동물 사육 및 산업 현황

이하에서는 “사단법인 애완동물 사료협회”가 일본 정부의 위탁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개 고양이 전국 사육 실태조사<sup>7)</sup>’를 통해 반려동물의 사육 상황을 알아보고, 관련 반려동물 산업을 사료와 용품으로 나누어 각각의 현황에 대해 확인한다.

6) 지자체별로 명칭이 다름.

7) 본 조사는 인터넷 설문조사이며, 2018년에는 50,000명이 설문에 응하였음.

#### 4.1. 반려동물 사육 현황

<표 3>은 애완동물의 사육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응답자 1만 4,850명 중 개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은 각각 6,300명(42.4%)과 4,900명(32.9%)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한다. 일본에서는 반려동물로서 개와 고양이가 주로 사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한 사육 현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표 3> 반려동물 사육 현황

단위: 명,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응답자수	6,632	7,946	10,012	8,345	9,391	7,674	50,000
개	13.5	11.7	12.2	14.5	13.7	10.0	12.6
고양이	9.0	9.0	10.8	11.3	10.4	7.5	9.8
조류	1.7	1.2	1.9	1.9	1.5	1.3	1.6
어류	7.9	9.4	10.9	8.0	11.3	12.2	10
페렛	0.3	0.2	0.1	0.1	0.0	0.1	0.1
토끼	1.2	0.9	1.0	0.9	0.5	0.2	0.8
기니피그	0.2	0.2	0.2	0.1	0.1	0.0	0.1
기타	1.9	2.3	2.0	1.5	0.7	0.4	1.5
미사육	71.4	72.7	68.5	67.4	68.7	74.4	70.3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개와 고양이의 사육 현황은 <표 4>와 같다. 개의 사육 가구 수는 2014년의 789만 세대에서 2018년의 715만 세대로 9.4% 감소하고 있고, 개의 사육마리 수 또한 같은 기간 971만 마리에서 890만 마리로 8.2%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양이 사육 가구 수는 같은 기간 536만 세대에서 553만 세대로 3.1% 증가하고 있고, 사육 마리 수 또한 949만 마리에서 964만 마리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본의 개와 고양이 사육 상황을 보면, 개의 사육 감소와 고양이의 사육 증가가 특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4> 개와 고양이 사육 현황

단위: 만 세대, 만 마리

구분	개		고양이	
	사육가구수	사육두수	사육가구수	사육두수
2014년	789	971	536	949
2015년	767	943	533	927
2016년	756	935	533	930
2017년	721	892	545	952
2018년	715	890	553	964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다음의 <표 5>는 1개월간의 개와 고양이 사육비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 의하면, 개의 평균 지출 비용은 1마리의 경우가 1만 368엔, 2마리 이상이 1만 7,089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양이는 1마리가 6,236엔, 2마리 이상이 1만 998엔이 지출된다. 즉, 1마리 및 2마리 이상인 경우 모두 개가 고양이보다 각각 4,132엔, 6,091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며, 이러한 사육비용의 차이는 앞선 사육 현황의 하나의 요인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 개와 고양이 사육비용(1개월)

단위: 명, %, 엔

구분	1마리			2마리 이상			
	지출총액	사료구입	간식구입	지출총액	사료구입	간식구입	
개	응답자 수	903	875	706	179	175	137
	5천 엔 미만	34.9	94.5	98.6	18.9	81.7	98.6
	5천 엔~1만 엔	31.9	5	1.2	19	14.3	0.7
	1만 엔~1만5천 엔	16.3	0.2	0.1	16.8	2.3	0.7
	1만5천 엔~2만 엔	8.4	0.2	0	14	1.1	0
	2만 엔 이상	8.5	0.1	0.1	31.3	0.6	0
	평균 지출금액	10,368	2,629	1,261	17,089	4,181	1,636
고양이	응답자 수	506	488	311	265	259	178
	5천 엔 미만	63	92.4	98.4	39.6	76.1	97.8
	5천 엔~1만 엔	26.1	6.6	1.3	30.6	17	2.2
	1만 엔~1만5천 엔	6.5	0.4	0.3	14	3.5	0
	1만5천 엔~2만 엔	2	0.4	0	4.9	1.9	0
	2만 엔 이상	2.4	0.2	0	10.9	1.5	0
	평균 지출금액	6,236	2,599	1,092	10,998	4,864	1,469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다음의 <표 6>은 개의 사육 서비스 이용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사육 서비스는 미용이 36.5%, 돌봄<sup>8)</sup>이 21.7%, 외출 장소 알림<sup>9)</sup>이 3.8%의 순이다. 연령별로 살펴 보면, 미용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은 50대 이상에서의 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층으로 갈수록 개 사육에 필요한 노력의 일부를 외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6&gt; 반려동물 사육 서비스 이용 실태(개)

단위: 명, %

구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응답자수	1,093	89	153	196	250.0	226	179
미용	36.5	34.8	37.9	34.7	37.6	39.8	32.4
돌봄	21.7	10.0	20.9	14.3	21.6	27.5	31.3
외출 장소 알림	3.8	6.7	3.9	5.1	3.2	1.8	4.5
교육훈련	3.5	7.9	3.9	3.1	2.0	4.4	2.2
정기배달	2.8	1.1	2.0	3.6	3.6	4.0	1.1
사육자간 교류	2.3	3.4	3.9	3.1	1.6	1.8	1.1
입양	2.2	7.9	2.6	1.0	1.6	0.9	2.8
상담	2.9	6.7	3.3	1.5	3.2	4.0	0.6
산책대행	1.9	3.4	2.6	1.0	2.0	0.9	2.8
사육 환경 정비	1.6	2.2	1.3	2.0	1.2	2.2	0.6
전용택시	0.9	2.2	2.6	0.5	0.4	0.4	0.6
장례	0.9	2.2	1.3	0.5	0.8	0.4	1.1
기타	0.6	0.0	0.7	0.5	0.8	0.4	1.1
이용하지 않음	45.7	44.9	43.1	48.5	44.4	43.4	49.7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 4.2. 반려동물 산업 현황

반려동물의 사료 시장규모는 <표 7>과 같다. 출하금액은 2015년의 2,789억 엔에서 2018년의 2,876억 엔으로 3.1%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생산 사료가 증가하고 있고 수입 사료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축종별로 보면, 개 사료의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8) 돌봄에는 여행 및 출장 중의 돌봄 뿐 아니라, 펫 시터(집에서 동물을 돌보는 서비스)나 고령 반려동물의 돌봄도 포함되어 있음.

9)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 할 수 있는 주변의 장소를 알려주는 서비스임.

고양이 사료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개와 고양이의 사육 현황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사료 시장규모

단위: 억 엔,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출하금액	2,789	2,655	2,856	2,876	
출하량	합계	5,968	6,016	5,974	5,962
	국내생산	3,076	3,196	3,298	3,298
	수입	2,892	2,819	2,675	2,664
	개	3,071	3,071	2,949	2,810
	고양이	2,604	2,654	2,737	2,857
기타	292	289	287	293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사료 구입형태(<표 8>)는 주로 시판사료의 비율이 개와 고양이 모두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개의 경우 수제사료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시판사료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사료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표 8> 사료 구입 형태

단위: %

구분	시판사료	치료용 사료	수제사료	사람과 같은 식사	잔반	기타	
개	2014년	88.0	1.9	6.0	1.1	1.7	1.3
	2015년	89.6	2.0	4.8	0.8	1.3	1.5
	2016년	90.8	1.4	4.3	0.6	1.3	1.6
	2017년	89.7	1.5	5.2	1.0	1.2	1.4
	2018년	89.6	2.2	5.2	0.9	1.0	1.1
고양이	2014년	88.2	1.8	1.1	0.8	2.9	5.2
	2015년	87.6	1.5	1.1	1.0	4.0	4.8
	2016년	86.8	1.9	1.1	0.9	2.7	6.6
	2017년	88.7	2.5	1.2	0.8	2.3	4.5
	2018년	89.4	1.8	1.4	0.7	2.2	4.5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다음은 반려동물 용품에 대해서 검토한다. <표 9>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려동물 용품의 시장규모는 2014년의 1,512억 엔에서 2017년의 1,600억 엔으로 5.8% 증가하고 있다. 축종별로 보면, 개와 고양이의 시장 규모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상어, 조류, 곤충, 파충류 용품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9&gt; 용품 시장규모

단위: 억 엔,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율
전체	1,512	1,485	1,559	1,600	5.8
개	929	909	987	1,012	8.9
고양이	306	311	336	344	12.4
관상어	146	144	118	119	-18.4
소동물	67	61	64	69	2.9
조류	32	28	29	30	-6.2
곤충	17	16	15	16	-5.8
파충류	13	14	7	7	-46.1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7).

개와 고양이 용품의 시장 규모를 종류별로 자세히 보면(<표 10>), 개는 간식류와 위생용품의 비중이 크며 간식류, 위생용품, 액세서리의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액세서리로, 이는 2014년의 58억 엔에서 2017년의 78억 엔으로 34.5% 증가하였다. 반면, 고양이는 위생용품 시장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간식류, 하우징 용품, 위생용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간식류의 증가세는 39.1%에 달한다.

&lt;표 10&gt; 개 및 고양이 용품의 시장 규모

단위: 억 엔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율	
합계	929	909	987	1,012	8.9	
개	간식류	393	412	430	443	12.7
	하우징 용품	67	48	59	60	-10.4
	위생용품	346	324	361	374	8.1
	액세서리	58	63	79	78	34.5
	의약품	12	11	12	12	0.0
	기타	50	49	44	43	-14.0

(계속)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율)
고양이	합계	306	311	336	344	12.4
	간식류	23	30	29	32	39.1
	하우징 용품	13	12	16	14	7.7
	위생용품	237	240	267	281	18.6
	액세서리	18	20	19	13	-27.8
	의약품	3	1	0.9	0.9	-70.0
	기타	10	5	2	2.1	-79.0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7).

한편, 반려동물의 사료 및 용품의 구입처에서는 변화의 양상이 보인다<표 11>. 개와 고양이 모두 할인매장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에서는 인터넷과 약국, 고양이에서는 슈퍼와 약국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포장 사료 및 필요한 용품을 그때 그때 구입하는 등의 형태로 소비가 변화해 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1> 사료 및 용품 구입처

단위: %

구분		할인매장	인터넷	슈퍼	애완동물 전용샵	약국
개	2014년	72.0	28.7	31.0	29.0	18.9
	2015년	69.7	31.8	32.9	29.3	23.6
	2016년	70.2	33.8	30.4	30.9	22.8
	2017년	66.8	33.9	30.9	29.4	23.2
	2018년	66.5	34.9	31.9	30.1	27.2
고양이	2014년	71.4	43.7	28.8	16.4	27.1
	2015년	70.6	43.7	29.0	18.2	29.0
	2016년	67.3	42.3	33.3	19.0	30.1
	2017년	64.7	39.4	32.9	18.3	28.3
	2018년	66.6	44.0	34.9	16.7	32.3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 5. 시사점

일본은 「동물애호 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동물의 적절한 사육 환경, 공중위생의 확보, 위해 방지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동물애호 관리법」과 관련 시행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의 제정은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체제는 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춘 것으로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사육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민간 및 지자체 별로 반려동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나,<sup>10)</sup> 정부차원의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향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적 요구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차원에서도 기초자료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국적인 반려동물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사육 서비스 이용 실태와 관련 산업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도 반려동물의 사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반려동물의 돌봄 서비스가 70대 이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다양한 산업의 등장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이는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한국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반려동물 사육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질 것을 대비하여 이와 관련된 산업의 정비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0)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반려동물 양육실태와 경기도의 반려동물 산업 실태조사 등이 있음.

## 참고문헌

-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2018. 「2018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 실태조사」.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7. 「2017년 반려동물 양육실태 조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애완동물 사료협회. 2018. 「개 고양이 전국 사육 실태 조사」. 애완동물 사료협회.
- 애완동물 사료협회. 2014-2017(각년). 「애완동물 사료 산업 실태조사」. 애완동물 사료협회.
- 일본 애완동물 공업회. 2014-2017(각년). 「애완동물 용품 통계 조사」. 일본 애완동물 공업회.
- 홋카이도청. 2017. 「제2차 홋카이도 동물애호 관리 추진계획」. 홋카이도청.